포도원의 파수견 변형 한반도의 어사들: 무언현 연어목 아무 마을

문의 및 후기 공유: @observer_kadac

1a. 교만: 송가네 둘째 아들의 처 김씨 부인은 전쟁통에 남편을 잃고 먹고 살기 위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서책을 꺼내 베껴 저잣거리에서 팔거나 빌려주었습니다. 번 돈은 아들 하나 있는 살림과 시댁을 돕는 데 썼습니다. 장사를 하던 김씨는 봇짐 장수 천씨와 눈이 맞았습니다. 천씨는 김씨 부인과 하룻밤을 보내고서 양반 보지는 금보지라며 이곳저곳 떠들고 다녔습니다.

1b. 불의: 김씨 부인의 소문을 듣고 송씨 가문의 모든 일원들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시숙(남편의형)인 송 생원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합니다. 시아버지인 송 훈장도 부끄럽기는 마찬가지지만 김씨 부인에게 도움을 받는 처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김씨 부인의 아들 송동영은 어머니에 대해 도는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과거에 합격해 마을을 떠나 어머니를 한양으로 모시려 했습니다.

2a. 죄: 송 생원은 동영이가 행여나 과거에 합격하면 자기 가문의 치부가 천하에 드러날까 두려워합니다. 그는 김씨 부인이 베낀 책을 불태웠습니다. 건달 돌박이를 시켜 동영이의 과거길마저 막으려 했습니다.

2b. 악마의 공격: 돌박이 패거리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동영이를 쉽게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돌박이 패거리는 협박 정도로 끝내려 했으나 실수로 동영이를 죽이고 맙니다. 동영이는 마을 어귀의 언덕 아래에 묻혔습니다.

6a. 사람들

송 훈장은 전란 후 집안의 위세가 기울어진 사실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는 둘째 아들이 의병 활동을 하다 죽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관에서 아들의 명예를 높이고, 송가가 갖고 있던 논밭을 다시 개간할 관노를 내려주길 바랍니다.

송 생원은 소문의 진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김씨가 자결하여 가문의 명예를 높이기를 바랍니다.

김씨는 동영이를 찾고 싶습니다. 동영이를 찾지 못하거나 죽은 사실을 알면 자신이 더러워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자결하려 합니다.

죽은 동영이는 어머니가 자신을 찾아 제를 올려주고, 어머니의 소문이 거짓이기를 바랍니다.

봇짐 장수 천씨는 김씨와 혼인하고 싶어합니다. 못된 소문을 낸 까닭도 소문이 돌면 김씨가 위신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재가할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고을의 사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김씨가 장사를 계속하길 바랍니다. 김씨가 송가를 먹여살리면 관에서 송가를 돕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6b. 악마

악마는 김씨가 자결하는 대신 봇짐 장수 천씨에게 재가하기를 원합니다.

악마는 송가의 위세가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6c. 어사가 오지 않는다면

김씨는 천씨에게 설득당해 마을을 떠나거나 자결할 것입니다.

김씨가 마을에서 사라지면 송가는 김씨가 절개를 지킨 열녀라며 나라에서 상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송가가 상을 받으면 고을에서는 송가를 도울 일손을 구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명문가 송가를 업신여깁니다. 고을 내 반상의 권위가 무너집니다.